

아동대상 누에체험세트를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자 매뉴얼 개발

이은진*, 이상식*, 송창성*, 김웅*, 송은주*

*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

e-mail:lej1220@korea.kr

A Study on the Mulberry Box Cultivation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Silkworm Experience Set

Eun-Jin Lee*, Sang-Sik Lee*, Chang-Seong Song*, Woong Kim*, Eun-ju Song*

*Jeonbuk Stat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

곤충은 종의 다양성이 풍부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, 이 중 상대적으로 몸 크기가 작은 곤충들을 인류는 오랜 시간동안 역사속에서 정서적으로 이용해 왔다. 현대 문명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개인 또는 사회집단의 심리 및 정신적인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, 이에 식물이나 동물을 이용한 정신·심리치료 효과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으나, 아직 곤충에 대한 효과는 부족한 실정이다. 최근 교육현장 및 체험현장에서 운영되는 곤충 이용 프로그램은 해설식으로 진행되거나 일회성 체험 위주로 전문성이 부족하고, 치유 효과가 검증되지 못한 실정인바 실제 체험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.

이에 초등학교 1~6학년생들의 신체적, 심리·정서적 특성을 고려하여 누에와 뽕나무 체험세트를 활용한 누에치유프로그램 6회 차시를 개발하였다. 각 회당 50분으로 구성되어 누에와의 만남, 누에의 일생 알아보기, 누에 돌보기, 누에와 뽕나무 먹이주기, 누에 고치틀기&번데기 보기 그리고 누에 나방나오기 순으로 진행된다.

누에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1회 권장 인원 수는 농장의 규모와 운영자의 수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될 수 있으나, 진행자의 진행 및 관리를 고려하여 해당 참여자는 10여명 내외가 적당하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준 착한 벌레라는 뜻의 천충인 누에를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들은 누에의 생김새부터 생활사까지의 교육적인 측면과 함께 만지고 키우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여,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. 참여 대상자들은 누에와의 교감활동과 따뜻한 접촉을 통해 정서적 안정은 물론 다른 대상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도 배울 수 있다. 또한 누에를 돌보는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생명을 존중하는 생명존중 의식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 치유농장 운영자들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. 이를 통해 누에 사육농가의 새로운 소득화 모델로 제공할 수 있고 누에 활용 다각화 및 농가 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
T. 063-290-6275, F. 063-290-6292 lej1220@korea.kr

§ 위 연구 결과는 농촌진흥청 지역특화기술개발연구사업(RS-2002-RD010285)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.